

2019년 3월 13일(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 2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 3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 4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 후
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1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보라
 - 2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 3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 4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 후
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3월 14일(목) 기도 담당 : 고영준 장로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80장 다 같 이
 기 도 문현근 장로
 성 경 봉 독 출애굽기 9:1~21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바로왕, 왜 그리 완고한가?』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02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출애굽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3월 12일(화)	출 8:1-32	거짓 역사의 주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3월 13일(수)	출 9:1-21	바로왕, 왜 그리 완고한가?
3월 15일(금)	출 10:1-20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3월 13일 (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취득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신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삶의 습관을 갖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을 살아 저희들도 복되고,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새성전 건축임을 확신하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도와 물질과 시간 드려 헌신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에 입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에 격이 맞는 저희들의 믿음의 아름다움도 보게 하옵소서. 헌당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간섭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받은 바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시며, 교회의 중책을 맡겨주신 장로님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에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굽이굽이 이 민족 역사의 고비마다 구원을 베풀어주셨던 하나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두움의 그림자만 보일 뿐인 작금의 조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믿은 자들이 이 땅의 곤고함을 '나의 책임'으로 여겨, 지속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북관계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북한이 도모하는 모든 꾀계를 도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